

'88 주요 情報通信 정책방향

체신부 차관 李 海 旭



필자

- ▲서울 상대졸
- ▲서울대 행정대학원졸
- ▲체신부 우정국장
- ▲체신부 정책국장
-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 ▲체신부 차관(현)

머리말

'88년은 우리의 전기통신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그간 우리는 도래하는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의 기반이 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80년대에 들어서 매년 100만 회선 이상의 통신시설을 대량공급하여 전화적체를 완전 해소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전화의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국내 전지역은 물론 전세계 110개국과 자동 즉시 통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기통신의 숙원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통신기술진흥 및 통신산업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통신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전화기 자급제, 공중통신망 개방등의 제도적 조치에 의하여 국내통신기술 및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난해부터 통신산업분야의 국제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전자교환기, 광통신,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세계에서 10번째로 전 전자교환기(TDX-1)를 국내개발하여 이미 42만회선을 공급한 데 이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수출상당도 진행시킬 수 있는 단계

에 이르러 수출유망분야로 전망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45M/90Mbps 및 56 Kbps 광통신시스템의 개발, 한국형 텔리텍스단말기, 한국형 비디오텍스단말기 개발등 첨단통신 산업분야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의 개가를 올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및 조직개편 사업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었으며, 주요한 것들로서는 전기통신법체계의 정비, 한국데이터통신의 데이콤의 설립발전과 공중정보통신망의 이용확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한국전산원 및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써 전산망의 보급, 확장에 필요한 기반구조 (Infrastructure)를 갖추게 되었다.

통신사업의 발전

전화적체 해소로 기본통신수요를 충족하고 정보통신 및 이동체 통신분야 등에 있어서 서비스 수요가 고도화, 다양화함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통신사업운영체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통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신공사의 민영화추진을 추진하며 올해에는 체제전환에 필요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겠으며 내년부터 오는 '9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다.

또한 이동체통신, 향만통신, 구내통

신등 사업운영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것이며 부가치 통신 부문에서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국가통신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가무선통신망, 해상통신시설등 통합활용을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천재지변등 재해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통신고립지역에 대한 비상연락통신망의 확보방안도 검토 강구할 것이다.

정보통신의 이용확대와 함께 정보유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통신자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통신망의 다원화, 장거리 전송로의 다원화 및 주요가입자의 분산수용 및 가입자선로 이원화 구성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개선

그동안 통신시설의 양적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종래의 통신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앞으로는 통신망 및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제도를 국민편익 위주로 개선하도록 하고 새롭고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전화이용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번호 제도의 실시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공중전화의 착신서비스, 각종 생활정보안내 서비스, 전화사



서함 서비스등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보급에 노력함으로써 기존 전화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도모함과 함께 전화를 이용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동체통신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선박 전화서비스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열차 및 항공전화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자나 영세민의 통신복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장애자용 공중전화부스의 공급확대, 점자전화번호부의 발행, 장애자용 특수서비스 단말기의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영세민층에 공중전화 설치를 확대하고, 전신전화 채권의 폐지 및 전화설비비의 분납제 실시등 통신복지정책을 과감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개발과 산업육성

통신산업부문에서 기술의 고도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5만 회선이상 용량의 도시형 전자교환기인 TDX-10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91년까지 56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학계, 산업계, 연구소등과 공동개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사회의 핵심기술인 ISDN 기술의 국내자립을 위해서 장기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우선 1단계로 '91년까지 회선교환기술 및 협대역 ISDN 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산업부문에서도 행정전산망에 소요되는 컴퓨터를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90년까지 총 335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었으며 이와 함께 핵심 반도체 기술향상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소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소자부문에 연구를 집중하여 금년에 4M DRAM의 실용시제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중소통신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올해부터 매년 200억원의 자금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업계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데 정보통신기 및 부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그밖에 국제시장동향 및 기술정보의 조기입수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타개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금년 1월중에 CCITT 18연구단 회의와 한,일,홍콩 해저케이블 서명자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한편 각종 국제회의 및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통신부문의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기기의 다양화에 따라 통신기술 및 표준화의 필요성은 더욱 요청된다. 특히 전산망 설비의 이용확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정보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이종망과 이기종 컴퓨터간의 연동,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기술 및 기자재의 표준화등이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가기간전산망 추진위와 전자통신연구소 및 관련업체와 함께 전산분야의 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올림픽전산 및 통신지원

'86아시아게임 동안에는 LA 올림픽 수준을 능가하는 통신전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세계수준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으며, '87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텔리컴, '87포럼에서 세

계 각국은 우리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서울올림픽에서는 '86아시아 경기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최적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도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하에 총 24,891회선의 통신회선을 운용하여 전신, 전화, 방송 중계는 물론 차량전화, 천연색사진 전송, 무선호출, 전화사서함, 위키토키, 주파수 공용방식 무선서비스, 카드식 공중전화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전산기 16대와 2,500여대의 단말기를 통하여 경기운영시스템, 광역정보시스템, 대회관리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경기결과처리 및 각종 정보제공서비스는 물론 공중정보통신망과의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87년말까지 기본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고 금년 8월까지 시설 및 서비스의 시험운용이 완료될 것이다.

정보문화의 확산

정보의 가치가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감한 통신이용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통신요금 제도면에 있어서 시외거리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시내·외 요금격차를 축소하며,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요금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요금할인제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가가치 통신사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통신사업자는 공익 및 중소기업분야의 핵심 VAN을 구축·보급하도록 하고 기타 사업분야에는 경

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정보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운동에는 전기통신관련기관, 단체, 연구소등의 유기적 협조와 지원체제구축, 교육활동 및 홍보활동등의 강화, 시범전시 및 실습장설치등을 통한 국민적 인식제고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올해에는 비디오텍스, 텔리텍스등 새로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며 지역사회의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텔리포트 시범지구 구축등이 추진된다. 종합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시내교환시설 및 전송시설의 디지털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91년까지 시내교환시설의 25%, 시외전송시설의 72%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맺는말

기술발전이 사회변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정보화의 변혁은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경우 앞으로 선·후진국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사회의 정보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기술인 정보통신이며 따라서 정보통신을 주관하는 체신부는 급속히 진전되는 기술발전과 함께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전산 및 통신지원, 행정전산망의 완성, 새로운 부가가치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등 수많은 역사적인 과제수행을 위하여 바쁘고 보람찬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